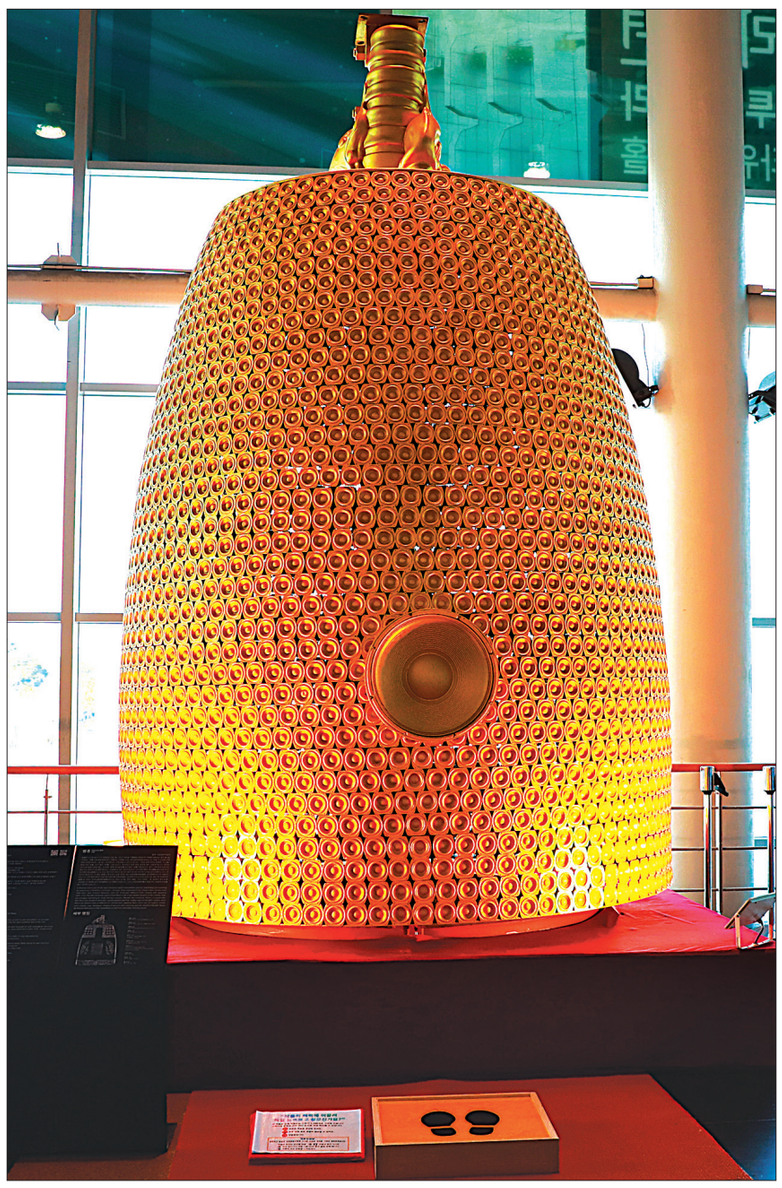
3천여 스피커로 재현한 성덕대왕신종

스피커 3088개로 성덕대왕신종 재현한
한원석의 설치미술 작품 '형연(洞然)'


한원석 작가

경주엑스포대공원 엑스포문화센터 전시
작품 앞 서면 음악 같은 종소리 들려와
버려진 존재 가치에 재생의 삶 부여해
PET병 이용한 불국사 다보탑 구상 중


한원석 작 '형연'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1200년 전에 봉덕사에 걸렸던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봉덕사종, 에밀레종)이 다른 이름 다른 소리로, 같은 듯 다른 모습으로 재현됐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이 2월 18일 엑스포문화센터 내에 한원석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형연(洞然)'을 설치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고 있다.

'형연'은 '맑은 소리가 깊고 은은하게 퍼진다'는 뜻으로 3088개의 버려질 스피커를 모아 성덕대왕신종을 재현한 설치미술작품이다.

관람객이 작품 앞에 설치된 발판 위에 올라서면 높이 3.7m 폭 2.3m 규모의 거대한 황금빛 종으로 변신한 3088개의 스피커를 통해 장엄한 종소리가 흘러나온다.

종소리는 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를 베이스로 해 음악화 작업을 거쳤다. 그래서 기존의 종소리가 아니라 예전 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를 뼈대로 한 한 편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에 의하면 성덕대왕신종과 스피커로 재현한 신종은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역할 그리고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소리' 속에서 다른 소리를 모색했다. 그 옛날 범종의 역할과 전시장의 예술작품으로 서있는 '형연'이 다르기 때문이다.

"저는 유산, 즉 남겨진 흔적에 관심이 많은 작가입니다. 흔적에는 상처도 있고 유물도 있습니다. 작품 '형연'은 곧 버려질(상처) 스피커로 위대한 유물(성덕대왕신종)을 재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작가는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채 폐기처분될 스피커들을 활용해 더 이상 타종되지 않는 성덕대왕신종을 오늘날의 소리와 모습으로 재현했다. 이들 오브제는 소리를 내고 싶어도 소리를 낼 수 없는, 형태는 있으나 원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운명체였다. 그러나 그 3000여 개의 작은 스피커들이 모여 1200년 전의 '성덕대왕신종'이라는 유전자를 받아 존재와 염원을 담은 '형연'이 됐다. 작품 '형연'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 채 버려진 가치에 재생의 삶을 부여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일상적 삶에서 공유되었던 가치들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작품 '형연'은 한 작가의 2008년도 작품으로, 6000번의 납땜 작업과 기타 작업들을 거쳐 1년여 만에 완성됐다. 당시에 한 작가는 버려질 스피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스피커의 정체성인 '소리'에서 표현의 대상을 찾았고 그것이 성덕대왕신종이었다.

범종은 법구사물 중의 하나로 지옥의 중생을 제도하는 불구이다.

범종은 본래 대중을 모으고 때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조석예불이나 의식을 치를 때 치게 됐다.

치는 횟수에 따라 의미가 다른데, 28번은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6조 혜능까지 이어진 법맥이 28명이란 뜻이고, 33번은 불교의 세계, 곧 33천을 의미한다.

108번은 백팔번뇌를 여의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의미이다. 종소리가 지옥으로 울려퍼지라는 의미에서 종 입구는 아래를 향한다.

성덕대왕신종은 통일신라시대의 범종으로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을 만들고자 했으나 완성은 혜공왕 때인 771년에 이루어졌다.

처음엔 봉덕사에 조성했으나 수해로 봉덕사가 폐사되어 영묘사로 옮겼다. 1915년 8월에 종각과 함께 박물관으로 옮겼고 국립경주박물관이 신축 이전하면서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 경내로 이전됐다.

현존하는 최대 범종으로 제작 연대가 확실하고 각 부분의 양식이 화려한 동종의 하나이다. 상원사동종과 함께 통일신라시대 범종을 대표한다.

동종을 완성했을 당시는 통일신라의 예술이 각 분야에 걸쳐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로, 성덕대왕신종의 완성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동종의 명문은 종명鐘銘)의 효시일 뿐만 아니라 문장 면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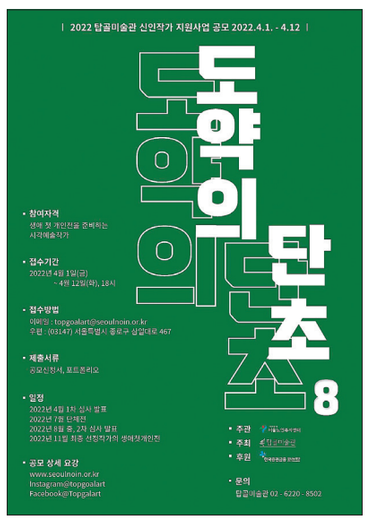
전체적인 동종의 조각기법은 동양 어느 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종인 동시에 상원사동종과 더불어 최대의 조각양식을 구비한 동종이다. 종신에 2구씩 마주보는 4구의 비천상은 연화좌 위에 무릎을 세우고 공양하는 상으로서 주위에 보상화(寶相花)를 구름과 같이 피어오르게 하고, 천상으로 천의(天衣)와 영락 등이 휘날리고 있는 것은 다른 신라 동종에서는 볼 수 없는 훌륭한 비천상으로 한국비천상의 대표가 되는 조각수법이다.

한원석 작가는 건축가이자 설치미술가로 2003년 아트사이드 갤러리 개인전을 시작으로 총 일곱 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2014년 창원 조각 비엔날레 등 11번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6년에는 1374개의 버려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모아 첨성대를 재현한 작품 '환생'을 발표하는 등 한국의 문화적 뿌리를 상징하는 작품을 선보여 왔다.

"제가 작업하는 작품 중의 불교 유물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접근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 유물들은 그냥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우리의 오래된 문화이자 '우리'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담겨 있는 흔적들을 재현해 내는 작업입니다."

한 작가는 다음 작품으로 불국사의 다보탑을 계획하고 있다. 소재는 PET병이다. 사용한 PET병을 모아 경주 시민들과 함께 작업할 계획이다. 올해 말 완성한다는 목표다.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사무총장은 "문화예술 산업에서도 친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재단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작품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054)748-3011.



탑골미술관 '도약의 단초8' 공모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접수
4월 중 1차 심사 결과 발표
7월 단체전, 8월 2차 심사
최종 선정자 11월 중 개인전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이 '도약의 단초 8' 공모를 개최한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생애 첫 개인전을 준비하는 시각 예술 분야의 작가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4월 중에 1차 심사를 결과를 발표하고, 7월에 단체전을 개최한 뒤 8월 중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단체전에 참여한 작가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관람객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작가는 11월 생애 첫 전시 개최를 위한 전시 공간을 제공, 멘토링 및 전시 홍보의 지원 등 특전을 받게 된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도약의 단초'는 신인 작가의 첫 개인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인 작가들의 예술적 세계관을 담은 작품 전시를 통해 예술가로서 도약의 발판 마련과 더불어 예술적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중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과 삶에 대한 인식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로써 세대 간의 공감을 모색하는 탑골미술관의 세대통합 사업이기도 하다.

작품 공모는 공모신청서와 최근 3년간 작품 15점 이내 이미지가 담긴 포트폴리오를 우편, 이메일 혹은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서울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www.seoulnoin.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2-6220-8502)로 문의할 수 있다.

탑골미술관은 고연령층 이용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네이버 오디오클럽 '전시 읽어주는 실버도슨트' 채널을 통해 실버도슨트가 직접 쓰고 말하는 음성해설로 작가는 색다른 해석을 경험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참여형 코너를 마련하여 단체전에 참여한 작가들이 모여 작품세계를 이야기하며 공통의 키워드를 선정한다. 이 키워드를 연상하며 작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관람객들도 저마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해 전시를 구성한다. 이 밖에도 최종 선배작가와의 만남, 작가로서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듣는 전문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시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여정을 통해 작품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는 예술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한뼘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도슨트, 체험키트 발송,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적과 지역, 연령대를 아우르며 관객을 유도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다.

관장 희유 스님은 "예술적 성장에서 출발의 시점이 같다고 여기지 않기에 누군가의 도약에 나이와 장르로 제한하지 않으려 시작한 도약의 단초가 벌써 여덟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양하고 폭넓은 관점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이번 만남에 역량 있고 깊이 있는 신인 작가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